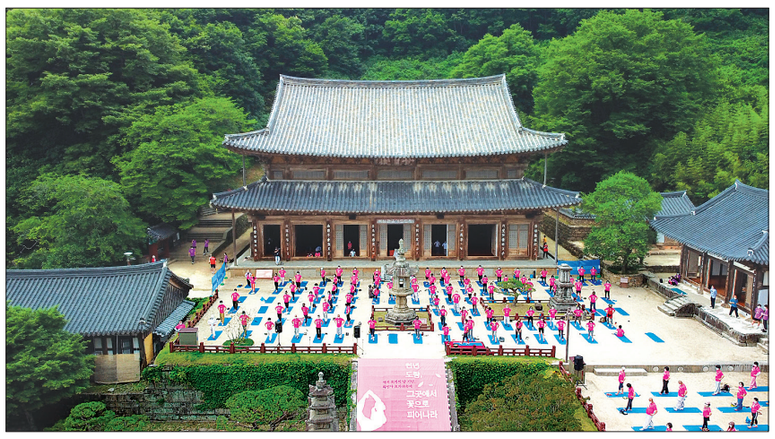
한걸음 더 대중과 가까워진 '화엄문화축제'

대화엄사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 화엄사 10월 1~3일

걷기대회·괘불재·음악제 등 '어머니의 길' 명명식 등 개최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동참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리산 대화엄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를 개최한다. 사진은 6월에 열린 '2021 화엄사 세계요가의 날 기념 요가 축제' 모습.

지리산 대화엄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를 개최한다. 한 걸음 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화엄문화축제'로 행사명을 바꿔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 걷기대회, 둘째 날 괘불재, 셋째 날 화엄음악회로 진행하는 야단법석으로 승가와 재가, 군민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10여 년 동안 보수불사를 마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이 9월 29일 준공 회향식을 마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뜻깊은 날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첫째 날 걷기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화엄사를 출발해 어머니의 길, 연기암, 금정암, 화엄사 각황전으로 돌아온다.

걷기대회는 그동안 화엄사 홈페이지와 구례군체육대회,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포교사단,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참가자들이 우선순위로 참여하며 참여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화엄사는 산내 암자 연기암까지 왕복 2km 구간을 '화엄숲, 어머니의 길'로 지정하고 걷기 대회 당일 대회에 앞서 걷기대회 참가자를 비롯한 사부대중과 함께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머니의 길'은 사사자삼층석탑에 담긴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과 '구례(求禮)'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에서 비롯됐다. 이날 명명식에는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과 어머니가 참석해 명명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들은 천년의 화엄숲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며, 화엄사에서 준비한 경품도 함께 받아갈 수 있다.

△둘째 날에 열리는 괘불재에서는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이 범패의식을 구현한다.

화엄사 괘불을 모시고 화엄사가 지닌 화엄법계의 이치를 장엄하는 괘불재는 이번 화엄문화축제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날에 열리는 음악제에서는 화엄사가 그동안 이어온 영성음악회의 명성을 기조로 클래식, 쎄미클래식, 재즈, 퓨전음악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사흘간의 화엄문화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음악제가 열리는 이날은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순례 3일차 일정으로 화엄사를 찾는 날이다. 상월선원 삼보사찰 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증흥 원력을 잇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순례단의 참여로 화엄문화축제의 의미를 한 층 더 높이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음악제에 참여하게 되는 상월선원 삼보사찰 순례단은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18일 동안 423km의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엄문화축제는 3월에 열린 사진 콘테스트 제1회 홍매화·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와 6월에 열린 '2021 화엄사 세계요가의 날 기념 요가 축제', 8월에 열린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제를 잇는 화엄사의 문화축제로 오는 12월에는 지리산 노고단과 둘레길 걷기와 산신제를 마련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마당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화엄문화축제 기간 동안 화엄문화축제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로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화엄사 061-783-7600)

생명나눔부산, 제13회 장기기증 캠페인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일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제13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캠페인 모습.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이하 생명나눔부산)는 10월 2일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제13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은 개막식과 거리홍보를 위한 걷기대회,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진행하며 본부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과 휠체어 전달식이 이어진다. 휠체어는 부산보훈병원, 성모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에서 추천한 환자를 선정해 전달하고 있으며, 생명나눔부산은 현재 환자를 위한 휠체어 후원도 받고 있다.

부산생명나눔은 "현재 6개의 휠체어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휠체어를 전달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거리홍보캠페인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자원봉사자가 참가하고 오전 11시에 출발하며, 개막식 동참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오후 2시 30분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출발해 공원 내 사명호국광장까지 걸으며 홍보지를 배포하고 장기기증의 가치를 알린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체험부스는 잔디머리인형 만들기와 생명나눔 캐릭터 타투하기, 손소독제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며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이어 갈 것이다. 많은 응원과 격려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추석나눔

온누리 상품권 등 7천만 원 상당 후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추석을 맞아 9월 14일 부산진구청 및 동구 범일동 지역을 방문해 4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3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성금전달을 위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 거주하는 40세대를 직접 방문해 격려했으며, 한 세대 당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했다.

백미는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들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백미는 총 10kg 860포이며 부산진구 내 주민센터가 홀몸어르신, 저소득 세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주식회사 YC-TEC을 이끄는 불자기업인이며 자비나눔 행보를 30년 이상 이어왔다. 현재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불자 기업인들의 친목 및 수행나눔을 이끌고 있다. 명절을 맞아 전달하는 자비나눔 외 장학금지원, 어려운 환자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사회복지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정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9월 14일 부산진구청 및 동구 범일동 지역을 방문해 7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백미를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부산정사, 개원 7주년 기념법회

9월 12일 부산정사 법당서 개최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9월 12일 부산정사 법당에서 '신뇨엔부산 봉안법요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기념법회는 예불문 독경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회고 영상 시청,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부장 인사말, 개조 이토 신죠의 영상 법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부장은 "부산정사 개원 7주년을 먼저 축하하고 아울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힘들어 할 때,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의지처인 부산정사의 개원 7주년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뇨(眞如)의 가르침으로 개조, 영조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타의 마음과 행으로 실천해가는 곳에서 자신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회에도 그 기쁨의 수레바퀴를 넓혀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부산 가야동, 연산동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가정법회를 시작으로 모임 및 수행을 이어왔다. 신뇨엔은 장학사업을 펼쳐 지역인재불사에 앞장섰으며 무료급식 후원 등 이타행을 실천했다. 아울러 부산불교연합회에 등록해 한국불교와 교류하며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사암聯, 코로나방역물품지원 전달식

위생장갑 및 작업복 등 1000만 원 상당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이하 울산사암연합회)가 9월 16일 백양사 경내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울산사암연합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물품은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작업복, 마스크 등이다.

전달식에는 울산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외 임원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강학봉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산옹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연합회 스님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함께 마련했으며 이렇게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가 9월 16일 백양사 경내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편, 울산종단연합회는 전달식에 이어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전통사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백양사 일대에 조성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2,000원

선어록의 백미·어록의 왕!

임제어록 역주

한국 선종의 원류를 만나다! 거침없는 말과 파격적인 언어로 선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임제 의현의 선풍과 종지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임제의현 저/강승욱 역/신국판/512쪽/값 27,000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둥절 깨달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궁극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붓다의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수필처럼 그려냈다.

고정해 지음/국판변형/20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